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논문집 제2집
조직신학편 pp.47-83

21세기 개혁교회 설교의 방향*

On the Preaching of the Reformed Church in the 21th Century

김 성 봉**

논문 요약

'21세기 개혁교회 설교의 방향'에 대하여 논하였는데, 21세기 개혁교회 설교의 방향에 대하여 다음 세 가지가 주장되어진다. 첫째는 개혁교회의 신앙전통에 견고히 서야 한다는 것, 둘째는 그동안 발굴해 놓은 바람직한 성경해석법을 총체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 셋째는 문자만 해석하지 말고 문자를 넘어 말씀하신 분의 마음을 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주제를 다룸에 있어서 먼저 우리가 맞게 될 21세기에 대하여 논하고, 그 다음 개혁교회에 대하여 논하고, 이어 개혁교회의 설교에 대하여 논한 다음 결론적으로 21세기 개혁교회의 설교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다루었다. '21세기'는 과연 새로운 세기이다. 아무도 살아보지 못한 세기를 우리가 살게 되었다. 21세기에는 21세기 특유의 현상들이 있을 것임에 틀림 없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선 인생의 내면적인 모습에는 조금도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예측되는 다양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보다 근본적인 인간의 필요에 있어서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먼저 확신하여야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21세기에도 그 택하신 백성을 말씀으로 부르시고 양육하실 것이다. 굳이 '개혁교회' 설교의 방향

* 본 논문은 1997년 9월 25일 한국 개혁주의 설교 연구원에서 설립 5주년 기념 특강을 한 것인데, 조금 수정하여 게재하였음.

**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조직신학 담당 교수임.

이라고 하였으므로 그냥 성경적이라고만 해서는 그 특성을 드러낼 수가 없다. 개혁교회라고 불리우는 그 전통에 충실해야 한다. 그 전통에 충실하기 위해서 착실한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심각한 전통의 단절을 극복해야 하겠다. 종교개혁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개혁교회의 주선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신앙계보에 대한 조직적이며 체계적인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개혁교회 설교'라 하였으므로 설교가 갖는 일반적 고찰 위에 개혁교회다운 특성을 고려하였다. 본문의 문맥을 강조하는 강해설교, 계시의 역사성을 강조하는 구속사적 설교(또는 성경신학적 설교), 변증적 특성을 강조하는 변증적 설교, 그리스도 중심성을 강조하는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 등이 따로따로 주장되지 말고 한 설교에 종합적이고 총체적으로 나타나야 하겠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석되고 작성된 설교가 전달되는 면에 있어서도 개혁교회 설교는 개혁교회다와야 한다고 하였다.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하되 감정을 부추기거나 감정에 의존하지 말고 오직 성령에 의지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간구하면서 전해야 한다. 또한 설교에 있어서 설교자, 본문과 함께 중요한 구성요소 중의 하나인 청중에 대해서도 논하였는데, 개혁교회 설교가 앞서 말한 이러한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청중 또한 개혁교회 교인다와야 한다고 하였다. 교인 수에 집착하여 전반적으로 수준을 떨어뜨리게 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주께서 허락하신 교인들을 수준있게 양육하여야 하겠다고 하였다. 이 글을 맺으면서 우리가 느끼는 중요한 과제로 개혁교회라고 표방하는 그 이름에 걸맞는 개혁신앙의 내용을 제대로 전수하는 일을 생각하게 된다. 이 신앙의 바른 전수를 위해서 보다 체계적이며 깊이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이 신앙전통에 있어서 모범적인 설교자가 있다면 그의 설교 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연구가 있어야 하겠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설교가 하늘 아버지의 말만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시 작 말

로이드 존스는 목사와 설교의 서언에서 “젊은 목회자들이 그들의 동역자들에게 설교 및 목회 문제에 관해 서슴없이 충고할 용의가 있음을 볼 때마다 나는 아연할 따름입니다. 누가 이런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¹⁾라고 하였는데, 필자 자신이 바로 그런 처지가 되고 말았다. 21세기 개혁교회 설교의 방향에 대하여 결국 다음 세 가지가 주장되어질 것이다. 첫째는 개혁교회의 신앙전통에 견고히 서야 한다는 것, 둘째는 그동안 발굴해 놓은 바람직한 성경해석법을 총체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 셋째는 문자만 해석하지 말고 문자를 넘어 말씀하신 분의 마음을 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주제를 다룸에 있어서 먼저 우리가 맞게 될 21세기에 대하여 논하고, 그 다음 개혁교회에 대하여 논하고, 이어 개혁교회의 설교에 대하여 논한 다음 결론적으로 21세기 개혁교회의 설교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I. 우리가 맞게 될 21세기

1. 20세기의 연장선상에 있는 21세기

(1) 20세기의 특성

몰트만은 그의 기독교종말론을 서술하면서 “19세기는 기독교적 시대”²⁾였다고 하였다. 그에 의하면 유럽의 열강들은 그들의 세계제국을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에 세웠으며, 메시아적 선교의 열정과 함께 유럽의 문화를 확장시켰고, 19세기 말에는 기독교적 세계가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관철되는 것처럼 보였으며, 이와같은 분위기 속에서 기독교의 천년왕국설이 자연스럽게 세계사적 해석의 틀로 나타나게 되었다고 한다. 19세기 기독교의 교회들과 민족들은 비록 그들

1) 로이드 존스, *목사와 설교*, 서문 강 역, 서울:기독교문서선교회, 1993, 5면.

2) 몰트만, *오시는 하나님*, 김균진 역, 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97, 25면.

이 분리되어 있었지만 모두가 정치적 천년왕국설에 도취되어 있었다고 한다.³⁾ 이처럼 19세기는 기독교적 세계의 메시아니즘과 기독교적 시대의 천년왕국설이 강하게 영향을 끼쳤던 시대였다.

20세기의 특성은 20세기가 겪은 유례 없는 경험들에 의하여 특징지어진다. 인류가 발전과 진보의 꿈에 젖어 있던 19세기였지만, 인류는 20세기를 들어서서는 첫 걸음부터 심각한 파멸과 그로 인한 낙담과 진보에 대한 회의를 맛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이 가졌던 메시아적 꿈들은 제1차 세계 대전으로 말미암아 무참히 깨어지고 말았으며, 1917년 10월 혁명을 통하여 짜르가 살해됨으로 러시아의 꿈도 사라지고 말았다. 숨돌릴 사이도 없이 제2차 세계대전과 함께 유럽이 파멸되고, 새로 일어나려던 독일은 그 자리에 다시 주저앉게 되고 말았다. 몰트만은 이를 두고 "기독교적 세계는 그의 기독교적 시대와 함께 무서운 방법으로 몰락하였다"⁴⁾고 서술하였다. 아우슈비츠, 600만 유대인의 학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의 원폭 투하, 체르노빌에서의 원전 사고, 환경 오염으로 인한 지구온난화 현상 등은 인류가 그 어느 시대에도 겪어 보지 못한 독특한 경험들이었다.

20세기는 이처럼 부정적인 특성만을 가진 것은 아니다. 20세기는 인류의 문화 생활과 관련하여 인류에게 긍정적인 면 또한 경험하게 하였다. 공산주의의 몰락과 함께 냉전이 종식되고, 민주주의가 융성하게 되었으며,⁵⁾ 항공기의 발달과 그에 따른 우주개발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성과,⁶⁾ 컴퓨터의 개발과 급속한 발달,⁷⁾ 유전공학 부문에서의 놀라운 만한 발전(복제 양의 출현) 등이 그것들이다.

(2) 예상되는 21세기

21세기는 20세기가 가졌던 좌절과 꿈을 그대로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 문명의 발달과 함께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환경오염은 당분간 가속화될 것으로

3) 같은 책 25-6면.

4) 같은 책, 28면.

5) 전 서울대 총장이었던 유기천 교수는 '세계혁명'(The World Revolution)이란 그의 최근 저서에서 "19세기에 잠정적으로 혼란에 빠지는 바람에 민주혁명의 가치가 다소 흔들리기는 했지만 이제 인류는 민주주의의 완성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쓰고 있다.(97.8.28. 조선일보)

6) 지금 화성에서는 우주 탐사선 '소너즈'가 탐사활동 중에 있다.

7) 최근 97 컴덱스 기조연설에서 소프트뱅크 회장이며 컴덱스 운영권자인 손정의 씨는 "컴퓨터도 진화하여 ... 마침내 감정까지 갖게 될 것"이라고 자신있게 피력하였다.(조선일보 97.8.27.)

전망된다. 우주 개발과 그에 따른 인조자연 출현이 예상되며, 복제양의 출현은 멀지 않은 장래에 복제인간의 출현을 예기하게 한다. 컴퓨터의 발달은 지금 관계자들이 예측하는대로 학습을 통하여 추론 능력까지 갖추게 되고, 스스로 발명하기도 하며 예술적 활동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의사나 애인 역할까지도 하게 될 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예측불허의 변수가 도처에 자리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인한 자연재해나, 화산대의 재활동으로 인한 재해, 구소련이 붕괴된 이후 통제를 벗어나 도처에 흩어져 있는 핵무기로 인한 재해, 고도의 유전공학 기술에 미처 따르지 못하는 도덕성으로 인한 패륜적 결과 등이 그것들이다.

2. 보다 근본적인 것

이처럼 우리가 21세기를 생각하게 될 때에 예상되는 놀라운 변화들을 염두에 두고 과연 우리의 사명인 설교가 오는 시대에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우리의 주제인 설교와 관계하여서는 변화보다는 불변성에 그 초점을 맞추게 된다. 로이드 존스는 설교에 대하여 그가 원하는 말을 두고 “시대가 변하지 않았는가? 당신이 말하고 있는 것은 20년 전이나 아니 100년 전에서나 통하는 소리가 아닌가? 우리가 사는 새로운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당신의 방법은 과연 옳은 것일까?”라고 힐난하는 물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서는 변하지 않으셨으며 사람도 변하지 않았다”⁸⁾고 분명하게 응답하였다. 그도 물론 외면적인 변천은 인정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은 전혀 변하지 않고 인간의 요구는 언제나처럼 정확히 동일하다”⁹⁾고 하였다. 이런 점에서 “새로운 것은 아무 것도 없다”¹⁰⁾고 그는 말하였다. 로이드 존스는 “오늘날 가장 중추적인 기만성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20세기에 살고 있으니 우리는 전혀 새로운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¹¹⁾이라고 하였다. 그는 이런 사상이 전후시대, 과학시대, 원자시대, 후기 기독교 시대(Post-Christianity era)라는 명목을 가지고 교회의 전체 영역과 교회의 사고방식에까지 침투해 들어오고 있다고 주의를 촉구하였다.¹²⁾ 이러한 사고에 대하여 로이드 존스는 “그것은 참으로 난센스”라고 일축하였다. 그는

8) 로이드 존스, 같은 책, 51면.

9) 같은 책, 같은 면.

10) 같은 책, 52면.

11) 같은 책, 같은 면.

12) 같은 책, 같은 면.

“전혀 새로울 것이 없으며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다”고 한다. 그에 의하면 “사람 또한 변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람은 타락 이래로 언제나 정확히 그대로이며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¹³⁾고 하였다. 그는 “인간의 참된 고통은 그가 하나님께 반역했고, 그래서 부단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¹⁴⁾이라고 하였다.

이와는 다른 맥락에서이지만 김영규 목사는 목회자들을 상대로 21세기에 대하여 말하면서 “태초의 인간이나 21세기의 인간이나 근원에 있어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¹⁵⁾고 하였는데, 그 이유로 인간의 문화나 문명이란 것이 어떤 한계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김영규 목사는 “모든 과학적 활동에서 인간화는 피할 수 없다.”고 말하며, “처음에 자연에 대해서 인간화의 부산물이 문명과 문화이었기 때문에 다만 자연의 인간화가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인간이 만든 문화와 문명이 자연화와 다시 인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런 면에서 우주계획이란 것도 인간이 다른 혹성으로 가기 전에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만든 가상자연을 먼저 이루어 놓고 거기에 인간이 들어가는 식이라고 말하며, 결국 인간이 다른 자연을 만들고자 노력하는데, 이 때의 다른 자연이란 단지 자연으로 가장하는 것일 뿐이며, 그 자체가 벌써 문화와 문명의 한계라고 역설하였다. 그에 의하면 “결국 21세기와 그 후 세기의 모든 발전이란 이 한계를 넘어서지 못한다면, 근본에 있어서 변화가 없고 예측이 가능하다.”¹⁶⁾는 것이다.

이처럼 설교를 해야 하고 또한 설교를 들어야 하는 인간에 있어서 보다 근본적인 것은 아무리 시대가 지나고 변화무쌍한 새시대가 도래한다 해도 변화가 없다는 것이 그 결론이다. 우리 주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20)고 하셨는데, 이 때 언급된 “너희”는 어떤 “너희”인가?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도록 부탁받은 제자들이 아닌가. 그 때 그 말씀을 직접 들은 사도들은 이미 가고 지금 이 땅에 더 없으나 사도적 전승 가운데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제자 삼고 세례 주며 가르쳐 지키는 일을 감당하는 목회자들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지 않겠는가! 이들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셨는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고 하시었다. 여기에 “세상 끝날까지”를 말씀하셨다. 이로써 볼 때, 주님께서도 이미 사도들만을 염두에 두고 말씀

13) 같은 책, 같은 면.

14) 같은 책, 34면.

15) 김영규, “21세기를 대비한 개혁교회상,” 미간논문에서, 3면.

16) 같은 글, 같은 면.

하지 않음이 분명하다. 21세기에 세상이 끝나지 않고 계속된다면, 주님의 교회 가운데서 설교 사역은 계속될 것이 틀림없다.

II. 개혁교회

1. 개혁된 교회

'개혁교회'란 용어는 넓게는 종교개혁의 원리를 받아들이는 모든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좁은 의미로 보다 정확하게 사용하자면 루터파와 대비되는 교단들을 가리키는데, 즉 칼빈에 의해 주장된 교리체제와 또는 정책을 따르며 여러 가지 개혁된 신앙고백을 하는 교단들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된다고 한다. 특히 유럽 대륙에서 유래된 칼빈주의 교회들은 개혁교회라 부르고, 영어 사용권에 속한 칼빈주의 교회들은 장로교회라 부르는데, 이 둘을 합하여 개혁교회라고 부르기도 한다.¹⁷⁾ 이같은 정의는 바빙크의 견해와도 일맥상통하는데, 바빙크는 당대의 연구들을 요약하면서 "개혁주의 그리스도인은 신론적으로 생각하고, 반면 루터주의 그리스도인은 인간론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며, "개혁주의자는 역사 안에 서서 머물지 아니하고 이념 즉 영원한 하나님의 결정에까지 끌어 올라가는데 비하여 루터주의자는 그 입장들을 구원사의 중심에서 취하고 더 깊이 하나님의 성정에까지 꿰뚫고 들어감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 때문에 개혁주의자들의 경우 선택이 교회의 핵심이고, 루터주의자들의 경우 칭의가 교회의 항존적이고 항상 출발하는 조항이다"고 하였다.¹⁸⁾ 이같은 맥락에서 본 논고에서는 '개혁교회'란 용어를 보다 좁은 의미로 쓰되, 장로교회를 포함하여 쓰고자 한다.

'개혁교회'라고 할 때,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베자의 말을 생각하면서 항상 개혁되는 쪽에만 마음을 쓰면, 자칫 개혁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할 우려도 있다고 본다. 개혁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개혁된 그 내용이다. 특히

17) W. S. Reid, "Reformed Churches," in: 기독교 대백과 사전 권1, 서울:기독교문사, 388-9면.

18) 바빙크, *개혁주의 교의학*, 김영규 역, 서울: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6, 208면. 이같은 바빙크의 견해가 19세기 독일 관념철학의 시스템 운동의 관점에서 나온 판단이라고 비판받기도 하지만(유해무, *개혁주의학*, 서울: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7, 54면 각주 80), 바빙크의 견해는 참조할 만하다고 생각된다.

우리 한국 장로교회처럼 다양한 선교 경로를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워진 경우에는 이 면을 바로 살펴서 제대로 확보하지 않으면 개혁교회로서의 정체성 자체가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개혁교회는 오히려 '개혁된 교회'라고 불리우는 것이 보다 더 정당하다고 여겨지기도 한다. 김영규 목사는 "17세기 개혁신학"이라는 그의 글에서 "한국 보수주의 교회에서는 정통 개혁주의 신학에 대해서 강조해 왔으나 실제로 정통신학의 계보에 대해서 잘 소개되지 않았다"¹⁹⁾고 말하며, "최근 퓨리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개되었어도 회중교회적인 퓨리탄들이 대부분 소개되었고,²⁰⁾ 진정 장로교 개혁주의 신학자들²¹⁾은 많이 소개되지 않고 미미한 정도에 불과했고, 더구나 칼빈 이후의 유럽개혁주의자들²²⁾의 소개는 극히 적었다."²³⁾고 말하였다. 이런 면에서 한국 보수주의 교회는 정통개혁주의 신학을 주장하면서도 진정 정통개혁주의 신학은 잘 못한 셈이다. 21세기가 되어도 이러한 개혁된 교회의 신앙전통을 제대로 잘 전수할 때에만 개혁교회라고 불리워질 수 있을 것이다.

2. 개혁된 교회의 주요 특성

이제 스스로를 개혁된 교회의 일원으로 여기며, 우리가 속한 교회가 개혁된 교회이기를 원하는 자들로서 오는 세기의 설교의 문제를 논하고자 할 때에 우리는 먼저 무엇이 개혁되었던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 면에 있어서 동질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이름만 개혁교회이지 실제 내용은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흔히들 개혁교회라고 할 때에 바로 종교개혁 당시의 개혁자에게로 돌아가는데, 그러한 태도는 그 이후의 교회 역사와 그 기간 동안의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는 행위이다. 종교개혁자들에게서 제기되었던 주장들이 그 이후 시대에 어떻게 예민하게 논의되었으며, 우리의 신앙노선은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살펴 보지 않으면 안된다.

19) 김영규, "17세기 개혁신학," 미간논문에서, 6면.

20) John Cotton, Thomas Hooker 등을 염두에 둔 것 같다.

21) S. Rutherford, R. Baillie, G. Gillespie, S. Marshall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W. Barker가 54인의 퓨리탄들에 대하여 정리한 책이 출간되었다.(W. Barker, *Puritan Profiles*, Ross-shire: Mentor, 1996)

22) 조지 길레스피가 말한 바 "가장 좋은 개혁주의 신학"에 상응하는 베자, 잔키우스, 우르시누스, 올레비아누스, 피스카토르, 유니우스, 파레우스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23) 김영규, "17세기 개혁신학," 미간논문, 6면.

우리는 칼빈 이후의 17세기 신학을 무시할 수 없는데, 특히 도르트 회의의 결정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간과할 수 없다고 본다. 도르트 회의의 결정이라고 말할 때 칼빈주의 5개 조항과 함께 채택된 벨직신앙고백서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중요성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²⁴⁾ 이러한 중간 기점들을 무시한 채 곧 바로 종교개혁자들에게 호소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본다. 이런 관점에 있어서 바빙크는 우리에게 중요한 안내자 역할을 한다. 바빙크에 정통한 김영규 목사는 역사적 정통개혁 신학의 바른 노선의 요점들로 다음의 사항들을 열거하였는데, ㄱ. 그리스도는 택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 ㄴ. 언약의 통일성 ㄷ. 유한이 무한을 받지 못한다는 것. ㄹ. 장로교 정치원리로서 교회의 열쇠는 성직자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직자회 자체(unitati)에 있다는 것. ㄴ. 세속정치로부터 교회의 독립성 ㅂ. 주일성수와 예배의식들 등이 그것들이다.²⁵⁾ 그는 또 다른 기회에 앞에 언급한 것들 외에 개혁교회가 지켜야 할 좀더 예리한 문제들을 제기하였는데, ㄱ. 일반종교와 과학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칼빈의 정신과 같이 문화적 관조주의가 필요하며, ㄴ. 이미 개혁된 진리 즉 우리의 헌법²⁶⁾을 지키고자 하는 강한 마음을 가져야 하며, ㄷ. 개혁교회의 핵심교리에 대한 실천적 의미를 발견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이를테면 a. 저항의 개념으로서 오직 성경이라든지 b.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에 따라서 창조와 섭리, 구원의 모든 역사의 유일한 주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든지 c. 교회의 통일성, 구원의 성취와 그 서정의 뿌리를 예정론에 두어야 하며 d. 은혜언약의 핵심사상이 구체적인 삶의 원리가 되어야 하는 것 등을 말하였다.²⁷⁾ 앞에 언급된 사항들 가운데서 우리의 주제인 설교와 관계하여서 특별히 염두에 두어야 할 것들은 “언약의 통일성”이나 저항의 개념으로서의 “오직 성경,” 창조와 섭리, 구원의 모든 역사의 “유일한 주체로서의 삼위일체 하나님” 등의 내용들이다. 클라우니 교수가 반틸에 대하여 말하면서 반틸이 그의 신학의 출발점으로 정한 개혁주의 신학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는데 참고할 만하다. “개혁주의 신학은 성경의 그리스도에서 출발하며, ... 개혁주의 신학은 구원과 계시에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 개혁주의 신학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

24) P. Schaff, *The Creeds of Christendom*, iii(1877), pp.550-80.

25) 김영규, “17세기 개혁신학,” 6-16면. 한제호 교수도 정통적 개혁주의 신학사상의 하나로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과 유기의 작정교리”를 언급하였다(한제호, “기독교 설교와 성경신학의 과제,” 미간 논문, 20면).

26) 김영규 목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개혁)의 헌법을 개혁교회의 정신이 잘 드러난 이상적인 헌법으로 생각하였다.

27) 김영규, “21세기를 대비한 개혁교회상,” 미간논문, 7-14면.

씀에 관한 인간의 모든 자율사상을 부정하며, 개혁주의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복으로부터 시작한다.”²⁸⁾

3. 개혁된 교회에서의 하나님의 말씀

벌코프는 개혁과 신학에 있어서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분명히 하였다: “개혁과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의 방편이라고 할 때에는 인격적인 말씀이신 로고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또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권능의 말씀을 뜻하는 것도 아니요, 선지자들이 받은 것과 같은 직접 계시의 말씀도 아니다. 그들이 은혜의 방편으로 간주하는 것은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가리킨다.”²⁹⁾ 벌코프에 의하면 성경을 은혜의 방편으로 말할 때에도 개혁과 신학자들은 특별한 관점에서 생각하는데, 그것이 모든 신학적 지식의 근원 곧 인식의 기초를 구성한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교회의 확장과 성도들의 교화 및 양육을 위하여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방편”³⁰⁾으로서의 성경이란 의미에서이다. 따라서 “성경은 탁월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며, 가장 중요한 은혜의 방편이기도 하다.”³¹⁾ “엄격히 말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신적인 명령에 의해서 전파된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행되는 성례와 더불어 전문적인 의미에서의 은혜의 방편이다.”³²⁾ 벌코프는 이 경우에 설교만을 배타적으로 말하지 않고, “보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은혜의 방편이 고려되어질 수 있다고 말하면서, “말씀을 가정에서 읽거나, 학교에서 가르치거나, 소책자로 배부하는 등 여러 가지 다른 부가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이 말씀이 사람에게 오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복이라 할 수 있다고 하였다.³³⁾

그의 조직신학이 벌코프에 의존하면서도 벌코프와는 달리 박형룡 박사는 “말씀은 전파된 때에만 은혜의 방편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진리에 주의하지 않고 성경 자체를 은혜의 방편으로 말하는 것은 결코 정확한 묘사일 수 없다.”고 말하여

28) E. P. Clowney, “Preaching the Word of the Lord: Cornelius Van Til, V.D.M.” 한재호 역, in: 한재호, *성경의 해석과 설교*, 421면에 게재.

29) 벌코프, *조직신학(하)*, 권수경·이상원 역, 서울: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1, 871면.

30) 같은 책, 같은 면.

31) 같은 책, 871-872면.

32) 같은 책, 872면.

33) 같은 책, 같은 면.

성경을 은혜의 방편으로 말하면서 전도의 말씀에 주의를 촉구하지 않은 핫지를 비판하였다.³⁴⁾ 또한 그는 바빙크를 인용하면서 성경 말씀이 설교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은혜의 방편으로 전달될 수 있다고 하였다. 바빙크는 “성경 말씀은 결코 신자들의 집회에서 공식적 인물에 의해 전파된 사실로부터만 능력과 공작을 인출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또한 가정에서 읽고 공부된 때에도, 부모나 선생들에 의해 이야기된 때에도 어떤 형식으로든지 관계없이 사람들에게 알려진 때에도 공작한다”³⁵⁾고 하였다. 박형룡에 의하면, 전도란 “하나님의 말씀의 봉사에서 그리스도를 통한, 교회에 의한, 복음의 권위적인 선포”³⁶⁾이며, 전도자는 “다만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하는 인물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자신이 말씀하시며 그리스도 자신의 음성이 그의 백성에게 들리게 하는 자”³⁷⁾이다.

별코프는 “종교개혁자들은, 말씀만으로는 믿음과 회심을 산출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며 성령도 통상적으로 말씀과 분리하여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구속사역에서 말씀은 성령과 함께 역사한다고 말한다”³⁸⁾고 하였다. 그에 의하면, “처음에는 루터파와 개혁파 사이에 별다른 차이점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루터파는 처음부터 성령이 방편으로서의 말씀을 통하여(per verbum) 역사한다고 주장한 반면, 개혁파는 성령이 말씀과 함께(cum verbo) 역사한다고 말하기를 더 좋아했다.”³⁹⁾고 한다. 별코프에 의하면, “개혁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는데, 곧 어떤 사람에게든 생명을 이르는 생명의 향기요, 다른 사람에게든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냄새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개혁파는 다만 성령이 죄인들의 마음 속에 작용할 때만 말씀은 믿음과 회심으로 이끄는 효력을 발생한다고 주장했다.”⁴⁰⁾고 한다.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주제를 마무리 지으면서 박형룡은 “구속의 실시에 있어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는 일이 성경 진리 자체의 도덕적 설복력에 의한다거나(준법주의), 성경말씀에 내재한 신적 능력에 의한다는(루터파) 견해들은 시인될 수 없고, 성경말씀에 성령의 주권적인 공작이 수반함에 의한다는

34) 박형룡, *교의신학. 교회론*, 서울: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1983, 216면.

35) Bavinck, *Raeping in Wedergeboorte*, pp.111, 112, 박형룡, 같은 책, 216면에서 재인용.

36) 박형룡, 같은 책, 218면.

37) 같은 책, 219면.

38) 별코프, 같은 책, 872-873면.

39) 같은 책, 873면.

40) 같은 책, 같은 면.

것이 성경적인 견해로 인정될 것이다.”⁴¹⁾고 하였다.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의 대요리문답 155문은 다음과 같이 묻고 있다. “말씀이 어떻게 구원얻는 일에 효력을 주는가?” 이에 대하여 문답서는 “말씀을 읽을 때, 특히 설교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것을 유효한 방편이 되게 하셔서 죄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며, 겸손하게 하신다. 또한 그들로 하여금 자신을 벗어나서 그리스도에게 오도록 하시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며, 유혹을 물리치고 부패하지 않도록 힘을 주신다. 또한 은혜로 양육하시며, 그들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신다.”라고 답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의 효력과 관계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의 사역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김영규 목사는 칼빈을 인용하면서 “성경이 성령에 의해서 영감되었고 그 성경가자들은 성령의 기구에 불과하다는 것은 [그] 구원이 오직 하나님 안에 있고 거기에 인간의 것과 혼합된 것이 없다 혹은 인간 자신의 어떤 것을 덧붙임이 없다는 말이다.”고 하였다.⁴²⁾ 그에 의하면 성경의 말씀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이유는 그것이 죽을 인간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즉 “성경의 말이 [성경]기자의 말일지라도, 고유한 의미에서 그 저자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이가 없고 [성경은] 그 분의 소유로 남아 있다.”⁴³⁾고 하였다.

이처럼 우리는 개혁된 교회 내에서의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의 독특한 위치를 확인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아직까지 발트식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삼중적 이해 같은 것은 나타나지 않는다.

41) 박형룡, 같은 책, 226면.

42) CO. 52, p.382와 CO. 42, p.203. 김영규, 21세기를 대비한 개혁교회 상, 미간신문 11면에서 재인용.

43) David L. Pucket, *John Calvin's Exegesis of the Old Testament*, Louisville: John Knox Press 1955, p.27, pp.47-48. 김영규 목사 자신도 이런 관점에서 박사 학위 논문을 썼다고 한다. Young-Kyu Kim, *Sola Scriptura und der trinitarische Gott als alleiniger Autor des Alten Testament*, Diss. Uni. Goettingen 1993. 그 가운데서 이 주제와 관련하여서는 특별히 S.63-64, 155ff., 159를 보라고 함.

Ⅲ. 개혁교회에서의 설교

이제 우리의 논의의 본격적인 주제인 설교에 대하여 다루게 되었다. 비록 21세기가 되어도 설교는 설교를 담당하는 설교자, 설교를 듣는 청중, 설교되어지는 본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세 요소로 구성되는 것은 변함 없을 것이다. 이 가운데 어느 것 하나라도 빠져서는 설교가 안된다. 물론 우리가 좀더 우리의 내면을 살피게 되면 설교자 자신이나, 설교를 듣는 청중이나 모두가 성령의 감동 아래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 면에 대해서도 시간이 허락하는대로 논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1. 설교

‘설교가 무엇이나?’ 하는 설교관에 따라서 다음에 다룰 전반적인 내용이 상당히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설교를 설교자가 성경을 가지고 오늘의 청중들에게 무언가를 말해 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 설교자는 청중들에게 무언가를 말해주어야 한다는 책임감과 부담감을 갖게 된다. 대신 여기에는 설교자의 자율적인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열려 있는 셈이다. 이에 비하여 만일 설교를 설교자가 오늘의 청중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성실하게 풀어 가르치는 것이라고 한다면, 설교에 있어서 무게는 설교자 자신보다는 오히려 성경본문에 더 가게 된다. 문제는 무게 중심이 설교자에게 가느냐, 아니면 성경본문에 가느냐 하는 것인데, 오늘날 내노라 하는 설교자들의 설교를 보면 대부분 그 무게 중심이 성경본문보다는 설교자 자신에게로 옮겨간 느낌을 받게 된다. 물론 설교에 있어서 설교자가 중요하지만 개혁교회의 신앙 전통에서 볼 때에는 성경본문이 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좀 더 구체적인 실례로 평양신학교 실천신학교수였던 콕안런(C. A. Clark) 교수가 그의 설교학에서 설교를 정의하면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사람을 구원하려는 계획과 목적에서 사람을 감동하도록 권면하는 법있는 종교적 강화”라는 헤릭 존슨 박사의 정의를 “가장 좋은 것”으로 제시하였는데,⁴⁴⁾ 우리는 이러

44) 콕안런, *설교학*, 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25, 1954, 1990.

한 정의를 대하게 될 때에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 된다. 물론 이같은 정의는 설교에 대한 정의로 무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주제가 '개혁교회에서의 설교'라는 점을 고려하게 되면, 과연 이같은 정의가 개혁신학의 정신을 제대로 잘 드러낸 정의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먼저는 설교를 "종교적 강화"로 정의한 것부터가 마음에 차지 않는다. 또한 "사람을 구원하려는 계획과 목적에서"라는 표현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사람을 감동하도록 권면하는"이란 표현도 너무 인위적인 뉘앙스가 나는 듯하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하는 표현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할 내용이라 생각된다. 전체적으로 무게중심이 설교자에게 쏠려 있다는 느낌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비하여 고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허순길 교수는 설교를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통하여 성경에 계시된 그의 구원의 뜻을 백성에게 나아가 공적으로 선포케 하는 봉사이다."⁴⁵⁾라고 정의하고, 그 때문에 설교의 본질도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다"⁴⁶⁾고 하였다. 광안련 교수의 정의에 비하여 허 교수의 정의는 다음 몇 가지 점을 분명히 한다. 먼저 설교의 주체가 분명히 드러난다. 설교의 주체는 하나님이다.⁴⁷⁾ 사람은 이 일과 관계하여서 주체로서가 아니라 사자요 봉사자로 서게 된다. 또한 사람의 어떤 계획이나 목적과 상관 없이 "공적으로 선포하는" 면이 강조된다. 그리고 그 내용이 "성경에 계시된 그의 구원의 뜻"이라고 분명히 정해진다. 우리는 이같은 정의에서는 전체적으로 무게중심이 설교자가 아니라 성경본문에 놓여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계속해서 허교수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적 해석으로 그 뜻이 밝혀지며, 이 뜻은 누구에게나 같은 것"⁴⁸⁾이라고 하여 설교에 있어서 객관적 기준으로서의 성경본문의 무게중심을 확고히 하였다. 허교수는 그 때문에 설교자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해석을 기반으로 하여 이것을 청중에게 바로 적실하게 적용시켜야 한다."⁴⁹⁾고 하였다. 이같은 허교수의 정의는 다음과 같은 칼빈의 정의와 무관하지 않다고 여겨진다: "설교는 본질적으로 계시된 말씀을 증거하는 것으로, 기록된 말씀을 명료화하고, 주석하고, 해석하며, 실천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이다."⁵⁰⁾ 칼빈은 목회자의

45) 허순길, *개혁주의 설교학*, 서울:기독교문서선교회, 1996, 27면.

46) 같은 책, 같은 면.

47) 그는 다른 곳에서 "엄밀한 의미에서 설교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다."고 하였다(허순길, 같은 책, 64면).

48) 같은 책, 28면.

49) 같은 책, 같은 면.

가르치는 사역에 대하여 말하면서, “신약의 제사직은 이것이다. 곧 말씀이라는 영적인 검으로 사람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것”⁵¹⁾이라고 하였다. 칼빈은 “가르쳐 지키게” 하는 내용으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으로 조건을 부여하신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내세우지 않고 그가 직접 명령하신 것만을 손에서 손으로 충실하게 넘겨주도록 하려는 뜻에서다.”⁵²⁾고 하였다. 따라서 “교회 위에 세워진 교사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제멋대로 내세울 것이 아니라, 한 분 교사의 입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가운데 자신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분을 위해서 제자들을 확보해야 마땅하다.”⁵³⁾고 하였다. 이처럼 개혁교회의 신앙전통에서는 설교에 대한 대한 정의도 보다 성경중심적이요, 하나님 중심적이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

2. 설교의 중요성

로이드 존즈는 “말씀 증거하는 것이 교회와 교회 목사의 최우선적 임무”⁵⁴⁾라고 하였으며, “교회의 제일차적인 목적은 ... 사람을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이끌어주고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하는 것”⁵⁵⁾이라고 하였다. 로이드 존즈는 또한 “인간의 진정한 필요와 성경에 나타나고 공언된 구원의 본질을 생각해 볼 때 교회의 최우선적 임무는 말씀을 가르치며 선포하여 사람의 참된 필요와 그에 대한 유일한 처방을 보여주는 일”⁵⁶⁾이라고 하였다. 그에 의하면 “인간의 참된 고통은 그가 하나님께 반역했고, 그래서 부단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⁵⁷⁾인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은 교회 뿐이며, 그것을 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설교자 뿐이라고 하였다.⁵⁸⁾

50) Inst. 4.3.

51) J. Calvin, *A Harmony of the Gospels Matthew, Mark and Luke*, vol.iii, tr. by A. W. Morrison, Grand Rapids:Eerdmans, 1972, p.255)

52) 같은 책, 같은 면.

53) 같은 책, 같은 면.

54) 로이드 존즈, 같은 책, 33면.

55) 같은 책, 28-39면.

56) 같은 책, 34면.

57) 같은 책, 같은 면.

58) 같은 책, 37면.

로이드 존스는 오늘날 설교의 위치가 하락된 첫째 이유로 “성경의 권위에 대한 신뢰감 상실”을 들었다.⁵⁹⁾ 그는 이미 1960년대에 다음과 같은 표현을 하였는데, 이같은 표현은 오늘날 한국교회의 형편에 적실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설교가 퇴색해 감에 따라 예배에 의식적 요소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거나 “설교가 하향길로 감에 반해서 다른 일들은 강조되고 있다”⁶⁰⁾고 하였다. 로이드 존스는 오늘날 설교의 위치를 낮게 평가하게 만들고 실제로 사양길을 견도록 한 데 대한 제반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였는데, 이같은 내용들을 잘 살펴 보게 되면 오늘날 우리가 처한 딜레마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지혜를 얻게 되리라고 생각한다. 그는 또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교회사상 쇠퇴기에 빠진 시대는 언제나 말씀 전하는 것이 감퇴되어 있었다. ... 종교개혁이나 부흥의 여명을 알리는 것도 ... 말씀 전하는 것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 증거에 새로운 관심을 불러 일으킬 뿐 아니라 말씀 증거의 새로운 유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참됨 말씀 전파의 부흥은 언제나 교회역사상 위대한 부흥운동을 가져왔습니다.”⁶¹⁾

로이드 존스는 마치 (각양 각색의 프로그램에 목말라 하는) 오늘날의 한국 교회를 두고 질타하듯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말씀 전하는 일을 떠나 다른 수단으로 눈을 돌리는 순간 끊임없는 변화에 마음의 갈피를 못잡을 것이다.”⁶²⁾ 그는 영국 교회는 이미 이같은 경험을 하였다고 말한다. “과거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 중 하나는 경험을 했다는 것”이라고 말하며, “새것이 와서 사람들이 그것에 매우 흥분해 있는 것을 볼 때 우연히 40년 전에 있었던 유사한 술렁거림을 기억하게 된다”⁶³⁾고 하였다. 로이드 존스는 “오늘이야말로 말씀 전파를 위해 하늘에서 보내준 기회”라고 주장하면서, 말씀을 약화시키려는 그 당시 시대분위기가 이미 살았던 앞 시대의 분위기와 너무 유사하다고 말한다. “심지어는 말씀 전하는 것은 조금 덜하고 다른 재미있는 것을 더 고안해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까지도 어쩌면 그렇게 같은지 모르겠습니다.”⁶⁴⁾고 하였다. 로이드 존스는 오늘날 교회가 당면한 제반 사회문제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우선순위를 당연히 설교에 두어야 한다고 역설하였

59) 같은 책, 16면. 이에 비하여 존 스타트는 설교에 대한 최근의 거부들의 원인으로 1) 반권위적인 분위기 2) TV의 영향 3) 교회가 복음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것 등을 들었다. (존 스타트, *현대교회와 설교*, 정성구 역, 서울:풍만, 1985, 59-104면.

60) 같은 책, 20면.

61) 같은 책, 30면.

62) 같은 책, 44면.

63) 같은 책, 45면.

64) 같은 책, 53면.

다. “사회, 정치조건에 대한 관심, 개인의 행복에 대한 이러한 관심 등은 언제나 기독교 내에 개혁과 부흥, 참된 말씀 전파가 일어날 때 가장 효과적으로 다루어졌다”⁶⁵⁾고 하였다. 로이드 존스는 “교회가 자기의 제 1차적인 임무를 수행할 때 다른 것들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된다.”⁶⁶⁾고 하였으며, “개인상담이나 그 외 모든 활동은 설교를 보좌하는 수단이지 설교보다 앞선 것이 아니라”⁶⁷⁾고 주장하였다. 고신대학원에서 봉직하였던 고재수 교수도 설교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교회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되어져야 한다.”⁶⁸⁾

3. 설교자

설교가 개혁교회 설교이고자 한다면 설교자가 개혁신앙을 가진 설교자라야 한다. 어떤 설교자가 개혁신앙을 가진 설교자인가? 개혁신앙으로 가르침받고 그 신앙을 자신의 것으로 고백하는 이가 곧 개혁신앙을 가진 설교자이다. 윌리엄 퍼킨스는 목회자를 가리켜 “죄인이 회개함으로 회복하게 되는데, 이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하나님의 사역자이다.”고 하며, 그는 “합법적으로 불리움 받았고, 하나님에 의하여 보내어졌으며, 그의 교회에 의하여 그 위대한 의무에 지명된 사역자”⁶⁹⁾라고 하였다. 목회자의 사역을 가리키는 명칭으로서 그는 “보냄받은 자, 사자, 또는 교사,”⁷⁰⁾ 그리고 “해석자”⁷¹⁾를 쓰고 있다. 또한 웨스트민스터 신학자 중 한 사람인 폴 베인은 에베소서 4:11을 주석하면서 목사를 “권고의 말씀과 성례시행에 수종드는 사역자”라고 하였는데, “교회 가운데 일상적이며 항구적인 직분”⁷²⁾이라고 하였다. 허순길 교수는 설교를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통하여 성경에 계시된 그의 구원의 뜻을 백성에게 나아가 공적으로 선포케 하는 봉사이다.”라고 정

65) 같은 책, 45면.

66) 같은 책, 46면.

67) 같은 책, 50면.

68) 고재수, *교의신학의 이론과 실제*, 서울:디다케, 1992, 121면.

69) William Perkins, “A treatise of the duties and dignities of the Ministrie(1609),” in: *The Works of Perkins* (III, 1631), p. 429.

70) 같은 글, p.429.

71) 같은 글, p.430.

72) Paul Bayne, *An entire commentary upon the whole epistle of the Apostle Paul to the Ephesians*, London, 1643, pp.482-483.

의하였는데, 이 정의에 따르면 설교자는 “하나님의 사자”이다. 사자는 사자인데, 공적으로 선포하는 일로 봉사하는 사자이다. 그에 의하면 “설교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 파송된 그의 사자”인데, 그 때문에 “그가 말씀을 전할 때는 주의 입이 되는 것이다”⁷³⁾고 하였다. 허교수에 의하면, “설교의 성격에 대한 바른 이해는 주께서 그의 종들에게서 보기 원하시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한다”⁷⁴⁾고 하였다. 이어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임을 참으로 아는 설교자는 그의 설교에서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이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을 감추게 된다.”⁷⁵⁾고 하였다. 허교수는 이런 관점에서 “교회에서의 설교는 직분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보았으며, 직분관에 있어서 개혁주의자들은 루터와는 전혀 다른 입장을 취하였다고 하였다.⁷⁶⁾ 그에 의하면 “개혁주의자들은 한편으로는 로마교의 교권적 직분 체제를 부인하고, 다른 한편으로 루터파의 직분관을 거절”하였는데, 개혁주의자들이 루터파의 견해를 거절하는 이유는 “직분이란 교회가 세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불러 세우신 것이며, 직분자는 교회의 이름으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직분적 봉사에 임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⁷⁷⁾이라고 하였다. 그 때문에 목사의 설교는 “직분적인 복음선포 행위”⁷⁸⁾이며, 설교 곧 말씀의 봉사는 “천국의 열쇠를 행사하는 일”⁷⁹⁾이다. 고재수 교수도 설교에 있어서 설교자의 수동성을 “설교자의 임무는 자기의 생각이나 체험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일인데 ... ”라고 표현하였으며,⁸⁰⁾ 강해설교를 강조한 데니스 레인은 ‘설교자’란 말 대신에 ‘강해자’란 말을 썼는데, 그는 강해자의 역할을 말하면서 “강해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여 사람들의 눈을 열고 그 말씀을 매일의 생활에 적용시킬 수 있어야 한다.”⁸¹⁾고 하였다.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 대요리문답 158문은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설교할 수 있는가?”라고 묻고, 그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는 그 일을 위하여 충분한 은사를 받은 자로서 정식으로 인정을 받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고

73) 허순길, 같은 책, 69면.

74) 같은 책, 53면.

75) 같은 책, 같은 면.

76) 같은 책, 47-54면.

77) 같은 책, 49면. 웨스트민스터 신조 30, 벨직 신조 30 참조.

78) 같은 책, 50면.

79) 같은 책, 같은 면. 하이델베르크 문답 83, 84 참조.

80) 고재수, *교의신학의 이론과 실제*, 121면.

81) 데니스 레인, *강해설교*, 김영련 역, 서울:두란노, 1995, 33-34면.

답하였다. 설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설교자이다. 누가 설교하느냐에 따라서 꼭 같은 성경을 사용하고 꼭 같은 청중을 상대한다 해도 그 내용이 천양지차로 달라질 수 있다. 이처럼 설교에 있어서 설교자가 중요한데, 문제는 개혁교회 강단에서 개혁신앙으로 설교하려면 먼저 설교자가 개혁신앙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데 있다.⁸²⁾ 김남준 목사는 “설교자 자신이 변하지 않는 한, 설교를 변화시켜 보려는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⁸³⁾고 갈파하였는데, “학습과 훈련을 통하여 설교가 세련되고 형식은 틀이 잡힐 수 있지만, 설교의 영적 수준을 높이는 것은 그런 식의 방법론의 추구만을 가지고는 가능하지 않다”⁸⁴⁾고 하였다. 그는 “중요한 것은 설교의 틀이나 내용을 다소 새 것으로 바꾸고 새로운 방법을 사용해 보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 자신이 변하는 것”⁸⁵⁾이라고 역설하였다. “변화된 설교자는 변화된 시각으로 성경을 보게 되고, 그렇게 변화된 시각으로 성경을 보게 될 때, 변화된 설교 내용이 나온다”⁸⁶⁾고 하였다. “그 변화된 설교 내용이 변화된 설교자의 심령을 통하여 선포될 때, 변화된 설교가 가능해지는 것”⁸⁷⁾이라고 하였다. 이같은 말은 개혁교회 강단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겠다. 설교자가 개혁신앙의 사람이 아니고는 개혁신앙의 설교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앞서 간 말씀의 종들은 하늘 아버지의 말씀과 함께 그 마음을 전하는 자들이었다. 이에 비하여 오늘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말씀을 해석만 하고 있어서 그 마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책감이 든다. 그들은 말씀을 사는 자로서 설교하였다. 폴 베인은 목사에도 세 종류의 목사가 있다고 말하였는데, 무식하고 부끄러운 목사가 있는가 하면, 유식하고 죄는 없으나 성별되지 않은 목사도 있으며, 참으로 성별된 목사도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들을 구별할 수 있겠는가 묻고는 그들의 가르침과 삶의 열매로 구별할 수 있다고 하였다.⁸⁸⁾ 또한 퍼킨스도 목사를 “해석자”라고 부르면서 그는 “학자의 혀를 가져야” 할 뿐 아니라, “거룩되고 성실한 사람이어야 하므로 생활에 있어서 성결과 거룩을 위하여 힘써야 한다”⁸⁹⁾고 하였다. 이처럼 설교자에게 있어서 그 설교에 걸

82) 존 스타트는 1961년 4월 10-14일에 미국 폴리신학교에서 설교자의 인격에 그 초점을 맞추어 “설교자상(The Preacher's Portrait)”이라는 제목으로 페이튼 강좌의 일환으로 특별강의를 하였는데, 그는 설교자를 청지기, 반포자, 증인, 아버지, 종으로 묘사하였다.(존 스타트, 설교자상, 문창수 역, 서울:개혁주의신행협회, 1972)

83) 김남준, 설교자는 불꽃처럼 타올라야 한다, 서울:두란노, 1995, 17면.

84) 같은 책, 같은 면.

85) 같은 책, 18면.

86) 같은 책, 같은 면.

87) 같은 책, 같은 면.

88) Paul Bayne, 같은 책, pp.484-485.

맞는 삶이 참으로 중요하다. 이에 비하여 오늘 우리는 말씀을 살지 않고 단지 해석자로서 설교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나를 본받으라!"(고전 11:1)고 외친 것은 바울의 교만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니라, 말씀을 사는 자의 진실된 외침이었다. 됴이 없고 삶이 없는 열변은 오히려 듣는 이를 공허하게 만든다. 이런 면에서 21세기 개혁교회 설교의 방향에 대하여 생각하는 우리들로서 앞서간 바람직한 개혁주의 설교자들을 연구하고자 할 때에 그들의 설교만 살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도 살펴야 하겠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말에 대해서만 살피지 말고, 그들의 행함에 대해서도 살펴야 하겠다. 그리하여 무엇보다도 먼저 그들이 가졌던 영적 민감성을 회복하여야 하겠다.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교훈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무엇을 말하느냐에 못지 않게 누가 말하느냐가 중요하다. 설교는 귀로 들려지기만 해서는 안된다. 눈으로 보여지기도 해야 한다(물론 이 말은 설교자의 삶을 두고 하는 말이다). 예수님을 가르치려는 노력은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노력이 동반하여야 그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개혁신앙의 설교자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바로 그같은 신앙을 가르치는 학교, 교회에서 그같은 인물들을 길러내지 않고서는 개혁신앙의 설교자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오늘날 과연 개혁신앙을 표방하는 학교와 교회에서 그같은 설교자들이 길러지고 있는지는 심히 의문스러운 형편이다.

4. 청중

우리의 주제와 관련하여 다음으로 생각할 대상은 청중이다. 청중 없이 설교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설교자가 개혁교회의 설교자답게 설교하려면 청중 역시 개혁교회의 청중다와야 한다.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 대요리문답 160문은 "설교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요구할 사항은 무엇인가?"라고 묻고는,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요구할 것은 말씀을 듣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준비하고 기도함으로써 참여해야 한다. 그들이 듣는 것을 성경 말씀에 비추어 검토하고, 진리를 믿음과 사랑과 온유함과 열린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참고하며, 마음에 간직하며, 생활 속에서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한다."고 답하고 있다. 오늘날 이런 청중들을 과연 얼마나 찾아 볼 수 있겠는

89) W. Perkins, 같은 책, p.431.

가? 어쨌든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개혁교회는 개혁교회다운 교인을 가져야 한다. 수에 급급하느라 이러한 면을 간과하게 되면 그많은 수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설교자가 잠시도 설교해야 할 그 본문을 잊고 지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잠시도 그 청중을 잊고 지낼 수가 없다. 소위 "설교학적 주석"이란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설교자가 본문이 의도하는 관점에서 회중을 보는 것"⁹⁰⁾을 가리킨다. 즉 "묵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허교수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잘 요리된 음식처럼 청중을 위해 잘 준비되고 공급되어야 한다. 말씀은 장성한 사람들에게는 굳은 음식으로, 어린아이들에게는 젓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말씀은 듣는 자들에게 적합해야 한다."⁹¹⁾고 하여 설교가 청중을 배려하여 준비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교회의 청중들은 그 구성원이 참으로 복합적인데, 이에 대하여 허교수는 "교회에서의 설교의 대상인 회중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그러나 교회의 교인들은 다양성보다는 많은 점에 있어서 일치성과 보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상의 구별을 따라 설교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⁹²⁾고 하였다. 청중에 대한 트립프 교수의 분류⁹³⁾는 설교자가 자신이 설교해야 할 대상을 의식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생각된다. 또한 청중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청중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에 대해서도 말하는데, 반틸은 "말씀의 설교자는 그의 청중의 세계, ... 바로 그 세계를 알아야만 한다."고 하며, "특별히 설교자에게 있어서는 곁핥기로 배운 정도의 얕은 지식을 가지고 사회학, 정치학, 집단심리학 등을 강단에서 말하되 자신의 아마추어식 주장이나 편견을 하나님의 진리라는 겉옷에 싸서 말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그는 "지혜로운 설교자는 그의 청중들이 일상에서

90) 트립프, *설교학 강의*, 고서회 외 공역, 서울:기독교문서선교회, 1986, 25-26면.

91) 허순길, 같은 책, 30면.

92) 같은 책, 58면.

93) 청중에 대한 트립프 교수의 분류: 1) 그들은 현대인들이다 - 이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변명, 불안, 쫓기는 삶, 정치적 생활 속의 긴장, 미래에 대한 염려, 세속화, 도덕의 혁명, 메스컴을 통한 불신앙적인 이론들이다. 2) 그들은 개인적으로 염려가 있는 사람들 - 이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슬픔, 궁핍, 상실, 미스테리, 어려운 직장문제, 가정교육문제, 질병이나 노후에 관한 염려, 이 세상의 젊은 남녀간의 문제들이다. 3)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이다 - 언약 속에서의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 용서, 성령의 사역을 통한 하나님의 돌보심에 관한 것들을 깨달아야 한다. 4)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미래를 맞이하는 사람들 - 그들이 생명의 싸움을 싸우는 가운데서 평안, 곧 믿음의 궁극적인 승리를 기대한다. 5) 그들은 그리스도의 교회의 구성원들이다 - 그들은 교회의 전투에 참여하거나 그 속에 참여하기를 배워야 하고, 성도 상호간에 교통하기를 배워야 한다(트립프, 같은 책, 27면).

직면하고 있는 정치도의문제, 생물학적 연구분야, 의학적 관심분야, 환경문제에 대한 청지기 의식 등에 관해 분별력 있는 격려를 청중에게 줄 수 있을 것이다. 또 그는 우리 모두가 당면하는 문제들에 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대처 방안에 관해 청중들로부터 배워야만 한다.”⁹⁴⁾고 하였다.

청중과 관계하여 우리는 그 청중들을 상대하는 설교자의 역사의식에 대하여 말하지 않을 수 없는데, 만약 어떤 설교자가 청중들로 하여금 그들의 사적 관심에만 집착하게 만들고, 오늘의 헌신이 그들의 사적 관심을 충족시켜 줄 것이라는 암시를 준다면, 그런 설교자는 이미 역사의식을 상실한 설교자이다. 오히려 저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관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고 보다 궁극적인 관심, 즉 하나님의 관심에 민감하게 집중하게 하여 비록 작지 않은 시련과 역경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성도로서 가야 할 걸음이라면 능림히 걸어가도록 일깨우는 설교자라야 제대로 된 설교자라 할 것이다. 한제호 교수는 성경해석자와 설교자의 “시대감각”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시대의 표적’(마 16:3)에 대한 우리의 바람직한 자세는 무엇이겠는가?”라고 묻고는, “성경의 해석자와 설교자가 교회에 관하여만 말하고, 세상 즉 역사에 관하여는 함구한다면 그 해석과 설교는 역사와 괴리된 작업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하였다.⁹⁵⁾ 이처럼 설교자는 자신이 설교하는 본문 말씀에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설교를 듣는 청중에 대하여도 정통하여야 한다. 존 스타트는 설교를 ‘다리놓기’에 비유하면서 그가 그렇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로 “설교가 단순한 해석이 아니라 의사전달이기 때문이며, 단순한 본문해석이 아니라 그것을 들을 필요가 있는 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⁹⁶⁾이라고 하였다. 그 때문에 그는 설교자가 성경연구 뿐만 아니라, 현대세계에 대하여서도 상당한 식견이 있어야 할 것을 말한다. “성경 및 신학연구 자체만으로는 훌륭한 설교에 부족을 느끼게 한다. 그것이 필수불가결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대의 학문연구에 의해 보충되지 않으면 우리는 불행하게도 문화적 간격의 한 쪽에 격리될 수도 있는 것이다.”⁹⁷⁾고 하였다. 허교수에 의하면 “개혁주의 설교자들 중에 칼빈만큼 말씀의 봉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과 적용이라는 사실을 실행에 옮긴 사람은 없다. 설교에 있어서 그의 주해는 언제나 실제적인 설교적 주해였다. ...

94) 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장이었던 E. P. 클라우니가 ‘반틸의 그리스도 말씀 중심 설교론’에서 인용.

95) 한제호, “G. 보스의 성경주석 중심의 신학방법 개관,” 미간 논문에서(27면).

96) 존 스타트, *현대교회와 설교*, 정성구 역, 서울:풍만, 1985, 154면.

97) 같은 책, 209면.

그의 말씀 봉사는 언제나 성경본문을 해석하고 청중을 적용하는 것이었다.”⁹⁸⁾고 한다. 결과적으로 “설교의 본질은” 허교수의 말처럼 “그 때 계시된 성경본문의 말씀을 밝히 해석하고 현재의 청중에게 이를 적실하게 적용하는 데 있다.”⁹⁹⁾

5. 성경과 성경해석 및 설교 방식

설교에 있어서 성경본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는다. 설교자가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본문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살피더라도 즉시 그 말씀 앞에 듣는 자로 서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 관련하여 트림프 교수는 “주석에서 우리는 얼마 동안 본문을 방법적인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 다음 본문 자체가 말하고, 우리는 그의 말씀의 봉사자가 될 때 설교가 가능하다.”¹⁰⁰⁾고 하였다. 즉 “처음에는 우리가 본문을 가지지만 뒤에는 본문이 우리를 가진다.”¹⁰¹⁾고 하였다. 그에 의하면 “성경은 객관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에게 전하시는 그 말씀이다.”¹⁰²⁾ 그 때문에 “성경은 얼마간 주석의 대상이 된 후에, 주석으로 결정된 의미로 우리에게 말하기를 시작한다.”¹⁰³⁾고 한다. 한제호 교수도 이 면을 강조하여 “주석에서 뿐 아니라 설교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인간(설교자)은 듣는 것이 기독교 신학과 설교의 본성일 것이다.”¹⁰⁴⁾고 하였다.

개혁신앙에 있어서는 설교에 있어서 성경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개혁신앙의 전통에서는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데니스 레인은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말함은 책을 경배하거나 우상화함이 아니요, 그 책 너머에 계시신 하나님 곧 처음부터 그 책의 말과 그 속에 있는 행위들과 설명들을 통하여 사람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뵈는 것이다.”¹⁰⁵⁾고 하였다. 허순길 교수에 의하면, “구약과 신약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교회를 위해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봉사인 설교의 과제이다.”¹⁰⁶⁾고 한다. 그에 의하면, “말씀의 해석이 말씀을 바로 전파하는 일에

98) 허순길, 같은 책, 31면.

99) 같은 책, 같은 면.

100) 트림프, 같은 책, 26면.

101) 같은 책, 같은 면.

102) 같은 책, 같은 면.

103) 같은 책, 같은 면.

104) 한제호, “기독교 설교와 성경신학의 과제,” 미간논문, 8면.

105) 데니스 레인, 같은 책, 14면.

속하므로”¹⁰⁷⁾ “설교자는 성경의 본문을 다루는 일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¹⁰⁸⁾고 한다. “그가 본문을 그 문맥에서 떼어내고 건전한 주해를 통해서는 나올 수 없는 뜻을 그 본문에 돌린다면, 이는 말씀의 봉사의 성격에 전적으로 배치될 뿐 아니라, 성령의 뜻을 거스리는 일이 된다.”¹⁰⁹⁾고 하였다.

종교개혁기의 성경해석에 있어서의 주요 특성은 성경을 철저히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었다. 칼빈은 갈라디아서 4:21-26에 대한 주석에서 풍유적 해석은 성경에 수많은 의미를 도입시키는 사단의 계략이라고까지 말하였다. 또한 로마서 주석의 서론에서는 “예전의 많은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성경을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고 마치 정구공을 가지고 노는 것처럼 대하는 것은 신성모독과 다를 바 없는 건방진 짓이다... 해석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저자가 말해야 한다고 여겨지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저자가 말하는 바를 스스로 밝히도록 하는 것이다”¹¹⁰⁾라고 하였다. 이같은 해석 원칙은 틴데일의 다음과 같은 글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그러므로 당신은 성경이 단 하나의 의미, 즉 문자적 의미만을 지닌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¹¹¹⁾ 이와 관련하여 칼빈에 있어서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간결함이다. 실바 교수는 칼빈이 시몬 그리네우스에게 보낸 편지를 인용하면서 “성경 해석가로서 칼빈의 저술이 지닌 특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간결함과 명료함에 대한 그의 열망이었다.”¹¹²⁾고 말한다. 칼빈이 보기에 그가 모범으로 삼았던 크리스소스톰에 비하여 대부분의 후대의 주석가들의 글은 장황한 듯이 여겨졌다. 실바에 의하면 칼빈이 굳이 장황한 주석 형식을 반대한 이유는 그런 형식이 자칫 성경본문의 메시지를 불확실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염려 때문이었다고 한다.¹¹³⁾ 실바에 의하면 “해석가의 임무는 저자의 의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인 반면, 장황한 자료들은 보통 해석가들이 자신들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만든다.”¹¹⁴⁾ 성경 본문에 대한 지나치게 장황한 설교는 지양해야 될 것으로 여겨진

106) 허순길, 같은 책, 30면.

107) 같은 책, 같은 면.

108) 같은 책, 52면.

109) 같은 책, 같은 면.

110) 월터 카이저, 모세 실바(공저), *성경 해석학 개론*, 강창헌 역, 서울:은성, 1996, 348면.

111) W. Tyndale, *The Obedience of a Christian Man*(Parker ed., *Doctrinal Treatises*, 1928), pp.307-309. 카이저, 349면에서 재인용.

112) Richard C. Gamble, “Brevitas et facilitas: Toward an Understanding of Calvin’s Hermeneutic,” *WTJ* 47(1985): pp.1-17. 카이저, 실바(공저), 같은 책, 394면에서 재인용.

113) 같은 책, 394-395면.

다. 우리가 본문에 접근함에 있어서 가져야 할 것이라고 트림프 교수가 말한 “해석학의 일반적인 규칙”들은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¹¹⁵⁾ 이제 그 강조점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하는 유형들을 살펴보자.

(1) 성경본문의 문맥에 대한 강조: 강해설교

먼저 생각할 것은 강해설교이다. 강해설교는 본문의 문맥을 잘 살피도록 요구하는 해석법에 근거한 설교방식인데, 개혁신교회의 설교는 철저히 강해설교라야 하겠다. 이 방식에 의하면 종래에 성경본문과는 상관없이 설교자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였던 설교와는 대조적으로 성경본문을 철저히 그 문맥에 따라서 설교하도록 요구한다. 데니스 레인은 “성경의 강해란 성경의 특정한 구절의 뜻을 그 회중의 필요와 환경에 따라 설명함으로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깨닫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¹¹⁶⁾고 하였다. 장두만 박사는 강해설교야말로 성서적 설교라고 말하면서 “강해설교란 주어진 성경 본문을 문자적-문법적-역사적 방법에 의해 해석하여 일정한 조직하에 현대의 청중에게 적용시키는 설교이다.”¹¹⁷⁾라고 정의하였다. 장 박사는 “모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설교는 강해설교라는 것이 나의 주장이다.”는 존 스타트의 말을 인용하면서 “모든 설교가 다 강해설교라야 된다고 믿는다”¹¹⁸⁾고 주장하였다. 그는 강해설교를 그 종류에 따라서 본문 강해설교, 제목 강해설교, 전기 강해설교로 나누었다.¹¹⁹⁾ 강해설교에 대한 평가는 서로 엇갈리

114) 같은 책, 395면.

115) 트림프 교수가 말한 “해석학의 일반적인 규칙”들: 1)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야 한다는 것 -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셨고, 또 현재 말씀하시는 말씀 곧 성경의 정경성을 출발점으로 삼는 것은 개혁주의 주석의 장점이다.”고 말하였다(트림프, 같은 책, 21-22면). 2) 우리가 말할 모든 것은 우리에게 성경 기록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더 가까이 가져와야 하는 문법적인 주석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 - “하나님은 자신의 말로써 처음 말씀을 하는 자나 기록하는 자가 깨달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의미하셨다”고 하였다. 3) 우리가 본문의 성격과 성경 각 권의 문학적 장르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트림프, 같은 책, 22-23면).

116) 데니스 레인, *강해설교*, 최낙재 역, 서울:성서유니온, 1982, 31면.

117) 장두만, *강해설교 작성법*, 서울:요단출판사, 1986, 23면.

118) 같은 책, 26면.

119) 같은 책, 26-29면. 참고로 장 박사가 말한 강해설교의 잇점과 어려움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장 박사는 강해설교의 잇점으로 다음의 사항들을 열거하였다: 1) 강해설교는 설교에 신적 권위를 부여한다. 2) 강해설교는 설교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설교하게 한다. 3) 강해설교를 하면 설교의 자료가 무궁무진하다. 4) 강해설교를 하면 다루기 힘든 문제를 원만하게 다룰 수 있다. 5) 강해설교는 설교자와 교인 모두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잠기게 한다. 6) 강해설교는 교회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장두만, 같은 책, 31-36면). 장 박사는 또한 강해설교의 어려움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였다: 1) 강해설교는 많은

는데, 데니스 레인이나 장두만 교수 뿐 아니라 한제호 교수도 “강해설교는 가장 성경적인 설교이다.”¹²⁰⁾고 한 데 비하여 트립프 교수는 “이 방법은 추천할 만한 것이 못된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주사상의 흐름도 없고, 목적도 없으며, 개념의 통일성도 없고, 여러 부분 사이의 관계도 잘 지적되지 않기 때문이다.”¹²¹⁾고 하였다. 트립프 교수의 이같은 염려는 신학적 전제 없이 문맥만 살피겠다는 방식이 자칫 나무는 보는데 숲은 보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 교회도 지난 팔십년대 이후 한 차례 강해설교의 열풍이 지나갔다. 김남준 목사는 “강해설교가 대안인가?”라고 묻고는 “설교는 배울 수 없는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선언하였지만,¹²²⁾ 그는 “강해 설교의 봄은 조국 교회 목회자들에게 가히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설교하자는 운동이었습니다. 설교의 내용이 본문을 해석하고, 현실에 적용하게끔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현실에 대한 적용은 설교의 두 기둥과 같은 것입니다.”¹²³⁾라고 하여 강해설교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21세기 개혁교회의 강단에서 이제 더 이상 본문과는 상관없는 설교자 자신의 주장이나 말들이 선포되지 않아야 하겠다. 철저히 본문의 문맥을 잘 살핀 가운데 본문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설교되어야 하겠다.

(2) 성경본문의 역사성에 대한 강조: 구속사적 설교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구속사적인 설교인데, 이 설교는 성경본문의 역사성을 강조하는 해석법에 근거한 설교방식이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설교에 있어서 성경신학적 방식의 적용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¹²⁴⁾ 개혁교회의 설교는 구속사적 설교라야 한다. 이 방식이 근거하는 해석법은 종래에 성경 본문을 그 기록내용이나 기록 자체의 역사성과는 상관없이 살피던 방식을 지양하고 철저히 그 역사성을 따져서 생각하도록 요구하는데, 이 해석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성 뿐만 아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바쁜 목사에게는 큰 어려움으로 등장한다. 2) 강해설교는 자칫하면 청중에게 권태감을 주기 쉽다(장두만, 같은 책, 37-40면).

120) 한제호, 성경의 해석과 설교, 43-53면.

121) 트립프, 같은 책, 32면.

122) 김남준, 같은 책, 15-17면.

123) 같은 책, 15-16면.

124) 한제호 교수도 “구속사적 설교 방법이란 다른 말로 성경신학적인 설교방법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고 하였다(한제호, “기독교 설교와 성경신학의 과제,” 미간 논문, 2면).

나라 처음 기록자와 처음 독자의 역사성까지도 생각하게 만들므로 성경본문이 갖는 실존적인 성격을 되살리게 한다. 트림프 교수는 “계시와 구속역사에 대한 강조는 성경을 단지 전통적인 교리를 증명하기 위한 진리로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반항이었다”¹²⁵⁾고 말한다. 트림프 교수는 “개혁주의를 이끌어가는 확신의 핵심”으로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명제를 제시하였다. 즉 “그 분이 하시는 사역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시고 또 사역하시기 그 이전에, 도중에 그리고 이후에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신다는 것이다.”¹²⁶⁾ 구속사적 해석 방식에 대한 트림프 교수의 평가와 그 방법의 중요성에 대한 박사의 견해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¹²⁷⁾ 또한 고신대학의 고재수 교수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장 잘 설교할 것인지를 문제를 두고 지난 전기독교 세기 동안 씨름이 계속 되어 왔는데, 이런 노력의 와중에서 20세기 초반에는 소위 구속사적 방법이란 것이 일어났다.”¹²⁸⁾고 하였다. 한제호 교수는 클라우니 교수의 글을 인용하여 성경신학적 설교방법이 “가장 적절한 설교방법”이라고 말하였는데, “성경신학적 설교방법은 본문의 의미를 명확히 해 줄 뿐 아니라, 그 중심 메시지를 강조하고, 건전한 적용을 도와준다.”¹²⁹⁾고 하였다.

125) 트림프, 같은 책, 64면.

126) 같은 책, 64-65면.

127) 구속사적 해석 방식에 대한 트림프 교수의 평가와 그 방법의 중요성에 대한 박사의 견해. 평가: 1) “구속사적”이라는 말 그 자체는 어떤 성경적이거나 개혁주의적인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2) 종종 “구속사”의 사상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포기했다고 한다. 3) 도식주의의 위험은 실제로 있는 것이다. 4) 객관주의의 위험도 있다(트림프, 같은 책, 71-72면). 중요성: 1) 구속사적 방법은 잘못되고 위험한 성경사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한다. 2) 이 방법은 현대 모범주의로부터 우리를 보호한다. 예를 들어, 소위 흑인신학이라는 것이 현대 모범주의의 특징이다. 3) 이 방법은 여러 종파가 역사를 무시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한다. 이들에 의하면 우리는 오순절의 경험과 체험으로 돌아가야만 한다고 한다. 4) 이 방법은 근본주의자들의 단편적 성경 사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한다. 5) 이 방법은 경험신학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한다. 경험신학의 현대적 형태에서는 우리가 진리를 찾게 되고 그것에 대한 증거를 줄 때만이 한 진리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트림프, 같은 책, 73-75면).

128) 고재수, 같은 책, 121면. 참고로 고재수 교수가 제시한 구속사적 방법의 몇가지 근본적 입장은 다음과 같다: 1) 하나님 중심과 우선 - 즉 “성경은 하나님의 사역과 그 분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중심으로 역사를 서술하고 있다”는 것. 2) 역사적 상황의 변화 즉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 대한 인식 - “역사를 진지하게 대하는 사람은 그 역사의 발전과 변화를 부인할 수 없게 된다”고 함. 3) 구원 - 구원의 말씀은 역사를 통과하는데, 성경은 구속사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적인 위치를 가진다. 따라서 어느 설교에서든지 설교하고자 하는 본문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과 어떤 관계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함(고재수, 같은 책, 122-127면).

129) E. P. Clowney, *Preaching and Biblical Theology*, Grand Rapids: Eerdmans, 1961, p.87. 한제호, “기독교 설교와 성경신학의 관계,” 미간 논문, 32면에서 인용.

계시의 역사적 성격에 대하여는 일찍이 코케이우스가 주장한바 있는데, 그 자신 철저히 계시의 역사성에 따라서 신학을 재정리하는 시도를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시도는 계시된 것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계시하신 분에 대하여 간과하게 만들므로 우리 신앙이 갖는 초시간적이고 영적인 면을 간과하게 만들었다. 바빙크에 의하면, "이 방법의 위험은 그것이 영원하고 변치 않는 실체를 시간적이고 역사적인 것의 흐름 안에 떨어뜨리고, 되어지는 것의 이념을 하나님 자신에게로 전가시키는 것에 있다."¹³⁰⁾ 계시가 갖는 역사성을 인식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계시가 갖는 초역사성을 잊어서는 안되겠다. 성경구절들이 아무런 시간관념 없이 증거구절들로 인용되는 것은 교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모든 계시 내용을 시간 속에서만 보려고 해서도 안된다. 계시가 갖는 역사성에 대한 인식은 계시가 갖는 초역사성에 대한 종래의 인식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한다. 계시는 분명히 시간 속에서 주어진 것이다. 그러나 그 계시가 가리키는 내용은 시간을 초월해 있으며 계시자 자신은 시간을 초월해 계신다. 우리의 시선은 계시를 넘어(혹은 통하여) 계시자 자신에게로 향하여야 하겠다. 이미 앞에서 보았듯이 트림프교수가 구속사적 해석방식에 대하여 염려한 내용들을 염두에 두고 이 방법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취하면 개혁교회 설교에 있어서 이 방식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3) 설교의 기능면에서: 변증적 설교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변증적 설교인데, 이것은 기독교 설교가 가지는 변증적 성격에 대하여 강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강조는 종래의 윤리 중심의 설교를 지양하도록 하고 예수의 그리스도되심을 잘 드러내는 데 주력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개혁교회 설교는 변증설교라야 하겠다. 한제호 교수는 C. 반틸의 "기독교는 곧 그리스도 변증이며, 신학은 곧 변증학이었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기독교 설교에 있어서의 변증적 성격을 강조하였는데, 한 교수에 의하면 반틸의 이 착안은 새로운 어떤 것이 아니라, "일찍 예수님과 사도들과 특히 바울에게서 나타났던 해석과 설교의 원리였으며, 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이방 세계에 뿌리를 내리던 초기의 2-5세기 동안에 이른바 '변증 교부들'에 의해 명백한 전례가 제시했던 기독교 설교의 중심원리"였다.¹³¹⁾

130) 바빙크, 같은 책, 김영규 역, 220면.

131) 한제호, *성경의 해석과 설교*, 서울:진리의 깃발, 1995, 271면. 예수님과 사도들에게

(4) 내용의 중심면에서: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인데, 이것은 기독교 설교가 가지는 그리스도 중심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종래의 설교가 많은 경우에 모범적 설교였으며, 때로 본문에 따라서 사람을 모범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는데 반하여,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초점을 맞추도록 요구한다. 한제호 교수는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의 중요성”이란 글에서 개혁주의 강단에서의 설교는 반드시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역설하였다.¹³²⁾ 그는 그리스도 없는 설교에 대한 성경의 경고를 예거하고는 하나님의 구원계획에서의 그리스도 중심성을 드러내었다. 그는 그리스도 없는 설교의 실례들을 다양하게 열거하고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의 요소들로 a. 설교 본문의 바른 선택 b. 개혁주의적 성경신학 이해의 필요성 c. 강해설교와 변증설교의 관계 등을 다루었다. 허순길 교수도 “설교의 내용은 성경의 내용과 같아야” 한다고 하면서, 성경의 내용이 “전체적 관점에서 하나님 중심이요, 본질적인 면에서 그리스도 중심”이므로, 성경의 메시지를 전하는 설교 역시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한다고 하였다.¹³³⁾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요 17:3)인데, 설교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의 설교는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¹³⁴⁾ 이런 면에서 개혁교회의 설교는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 하겠다.¹³⁵⁾ 그런데 이 경우에도 성경이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하여 성경이 그리스도만을 증거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한

서 설교의 모범을 취하는 데 대해서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날의 설교는 성경을 기준으로 한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사도들의 설교는 일종의 주제설교처럼 보인다. 사도들은 이미 기록된 계시의 해석의 면도 없지 않았으나 계시전달자 또는 계시사건에 대한 해석자들인데 비하여 오늘날의 설교자들은 전적으로 기록된 계시의 해석자들이다. 오늘날의 설교자로서 자신을 계시전달자로 생각하는가, 아니면 계시해석자로 생각하는가 하는 것은 설교의 방식에 있어서도 차이를 낸다고 생각한다. 참고로 존 스타트는 설교자를 “청지기”라고 말하면서, 설교자는 “선지자”가 아니며, “사도”도 아니라고 하였다(존 스타트, 설교자상, 9-35면).

132) 같은 책, 230-275면.

133) 허순길, 같은 책, 32-33면.

134) 참조. 허순길, 같은 책, 41-42면.

135) 한제호 교수는 E. P. Clowney가 행한 반틸기념신학강좌(Preaching the Word of the Lord: Cornelius Van Til, V.D.M., 1983-1984)를 번역하여 권말부록으로 전재하고 있는데(410-440면), 그 강좌의 제목을 “반틸의 ‘그리스도의 말씀 중심’의 설교론”이라고 번역한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주의 말씀을 설교하기: 반틸”이 더 낫다고 생각된다. 그 이유는 이 때 말하는 주의 말씀은 곧 성경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하는 것으로 착각할 소지가 다분히 있다. 클라우니 교수가 그의 강연제목들만이 Preaching the Word of the Lord라고 한 것은 바르트의 말씀론에서 보이는 성경에 대한 평가절하의 위험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쪽으로 치우치는 말이 되고 만다. 이러한 표현이 나오는 요한복음 5장 40절의 전후맥락을 살펴보면, 이것은 주님께서 구약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관짓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구약이 자신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고 주장하시는 내용이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해서 구약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하여, 그 하나님의 경륜에 대하여, 그 하나님의 인간창조와 창조된 인간의 타락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하여 가르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만일 성경에서 그리스도만을 배타적으로 중시여기게 되면 자칫 루터가 빠졌던 그 오류에 빠지게 될 위험이 있다. 그는 야고보서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없다고 하여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혹평하였던 것이다.

(5) 설교의 효과면에서: 상담설교 및 삶의 정황 설교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현대에 새로 제기되는 설교 방식이긴 해도 조금 더 숙고하지 않으면 개혁교회의 설교로는 아직은 추천하기 어려운 설교방식인데, 상담설교 또는 삶의 정황설교가 그것들이다. 상담설교에 대하여 송길원 목사는 "교인들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상담의 내용들을 '상황'으로 설정하고 상담적 접근으로 말씀을 나누어 주는 것"¹³⁶⁾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이렇게 함으로 말씀 속에서 "치유"를 경험하도록 도울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로이드 M. 페리는 '현대인을 위한 성서적 설교'(Biblical Preaching for Today's World)라는 그의 책에서 최근 설교의 경향으로 삶의 정황설교(Life-Situation Preaching)를 들고 있는데, 이 설교는 "인간의 경험 안에서 곤경의 느낌을 다루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관련된 성서의 의미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한다.¹³⁷⁾ 최근에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세들백 교회의 릭 위렌 목사의 설교도 적용중심의 설교이다.¹³⁸⁾ 그의 설교들을 분석해 보면, 구속사적인 안목은 전혀 없고, 거의 모두가 모범적인 적용 뿐이다. 본문의 역사성이나 문맥과는 상관 없이 본문의 글자를 현재적이며 실존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의 설교들은 마치 종교적 상담치유 같은 설교들이다. 그는 거의 모든 성경본문들을 상담심리 교재로 쓰는 인상을 준다. 대신 염려, 너무 바쁨, 상한 심령 등의

136) 송길원, "상담설교의 필요성," 그 말씀, 1994.11, 114면. 그말씀 11월호는 아예 '상담설교'를 특집으로 다루고 있다.

137) 로이드 M. 페리, 현대인을 위한 성서적 설교, 박명홍 역, 서울:은혜, 1994, 257-9면.

138) 릭 위렌, 회복의 길, 조성신 편저, 보급판, 1997. 그는 여기에 "자유로 가는 첫걸음"(사 57:18), "상한 심령이 도움을 얻는 방법"(히 11:6), "말기는 삶"(마 11:28-30) 등의 설교들을 수록하고 있다.

현실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은 친절하게 구체적으로 잘 제시해 주고 있는 감이 든다. 현대인들의 대단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이런 설교는 개혁주의 설교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방식들은 개혁주의 원리에 견고히 서서 응용해 볼 수는 있겠다고 여겨진다.

21세기 개혁교회의 설교의 방향에 대하여 논하면서 앞에서 언급한 본문의 문맥을 강조하는 강해설교, 계시의 역사성을 강조하는 구속사적 설교(또는 성경신학적 설교), 변증적 특성을 강조하는 변증적 설교, 그리스도 중심성을 강조하는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 등이 따로따로 주장되지 말고 한 설교에 종합적이고 총체적으로 나타나야 되겠다고 생각한다.¹³⁹⁾

6. 전달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 대요리문답 159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어떻게 설교해야 하는가?”라고 묻고는, “말씀 사역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때를 얻든지 못얻든지 부지런히 바른 교리를 설교해야 한다. 쉬운 말로 해야 하며, 사람의 지혜로 사람을 끌려고 하기보다는 성령과 능력이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낱낱이 충성스럽게 알게 하며, 청중이 무엇을 필요로 하며 받아들일 것인지를 알아서 거기에 자신들을 적응시켜야 한다. 하나님과 사람들의 영혼에 대한 불붙는 사랑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삼음과 동시에 사람들이 거듭나고 교화를 받아 구원에 이르도록 열심을 다해야 한다.”고 답하고 있다. “어떻게”라는 물음에 대하여 ㄱ.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ㄴ. 쉬운 말로 ㄷ. 성령과 능력이 나타나도록 ㄹ. 낱낱이 충성스럽게 알게 하며 ㄴ. 청중에 자신들을 적응시키며 ㄷ. 불붙는 사랑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 언급

139) 한제호 교수가 “개혁주의 설교는 성경의 문자적 해석 원리에 입각한 본문강해 설교이며, 따라서 풍유하나 도덕적 모범제시의 설교가 아닌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이다.”(한제호, 같은 책, 68면)라고 한 것이나, “오늘 우리가 기독교 설교의 기본 성격을 정통주의적 개혁주의 신학에 입각한 성경신학에 의존하는 구속사적 설교형태로 보는 입장은 충분히 타당하다.”(한제호, “기독교 설교와 성경신학의 관계,” 7면)라고 한 것, 그리고 정성구 교수가 “성경에 대한 풍유적 해석방법을 버리고 역사적 문자적 해석을 취하면서도 구속사적 시각의 강해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관심을 둔다.”(정성구, *개혁주의 설교학*, 260면)고 한 것은 이미 이같은 입장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된 “하나님과 사람들의 영혼에 대한 불붙는 사랑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며”라는 자세는 오늘날 개혁교회 설교자들이 반드시 회복해야 할 요소 중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최근에 김남준 목사는 이러한 주제에 관한 일련의 글들을 발표하고 있는데, 오늘날 지성적으로 차가와진 개혁교회 설교자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으로 여겨진다.¹⁴⁰⁾

그럼에도 개혁교회 설교자들은 감정주의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트림프 교수는 우리는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특별히 “우리는 자기를 통제하면서 말해야 하고 자신이나 청중들에게서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말아야 한다”¹⁴¹⁾고 하였다. 그는 “확실히 설교자는 감동을 보여줄 수 있고, 물론 그것은 금지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러나 설교의 목적은 신앙에 대한 지식과 신뢰를 주는 것이지 순간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¹⁴²⁾라고 하여 주의할 것을 요하고 있다. “불붙는 사랑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야” 하면서도 사람의 감정에도 호소하는 식으로 설교하지는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다. 설교의 방법과 관계하여 트림프 박사가 소개하고 있는 화란 개혁교회의 웨젤(Wezel) 선언은 비록 시대가 330여년이 지났지만 개혁교회의 설교를 하고자 하는 이들이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내용이라 생각된다.¹⁴³⁾

설교할 때에는 첫 마디에 설교의 요지를 말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설교의 전체 구조를 청중들에게 미리 말해 주어야 하겠다는 말이다. 그 다음에는 먼저 성경 본문을 풀어주어야 하는데, 물론 이 때에는 구속사적으로 해석해야 하겠으며, 그 후에 적용하는 교훈을 하여야 하겠다. 이 경우에 적용을 위하여 다양한 예화를 들 수도 있겠다. 먼저 조용한 설명, 차분한 설득이 있고, 그 다음에 우뢰같은 강조, 호소, 결단에의 촉구가 있어야 하겠다. 설교의 핵심을 하나로 하여 설교의 시작부터 그 주제를 향하여 집중해 나가는 것이 좋다. 시간은 예상된 시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 음성과 톤은 설명식과 연설식을 적절하게 섞어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웅변조로 말하는 것은 듣는 사람들을 쉬 피곤하게 만든다. 장두만 박사가 전달의 구체적인 방식으로 원고 낭독형이나 암기형이나 즉석형 혹은 자유전달형 보다는 ‘아웃라인형’을 권장하면서 이 방식이 “어느 방식보

140) ‘설교자는 불꽃처럼 타올라야 한다’(두란노, 1995) 외 다수.

141) 트림프, 같은 책, 61면.

142) 같은 책, 같은 면.

143) 같은 책, 19-20면에 전제되어 있음.

다도 더 좋은 방식"이라고 하며 이 방식이 갖는 장점들을 열거하였는데,¹⁴⁴⁾ 참고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IV. 21세기 개혁교회 설교의 방향

이제 지금껏 논의한 것을 바탕으로 하여 21세기 개혁교회 설교의 방향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해보고자 한다.

1. 변화된 시대에 대한 인식과 함께 인간의 보다 근본적인 필요를 분명히 인식하여야 하겠다.

먼저, 21세기라는 변화된 시대에 대한 인식과 함께 설교의 대상이 되는 인간들의 보다 근본적인 필요의 불변성에 대하여 분명히 인식하여야 하겠다. 개혁교회라는 보수성 때문에 시대의 변화에 대하여 무감각해서는 바람직한 설교자가 되기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시대의 변화에 지나치게 편승해서는 개혁교회의 설교자가 되기 어렵다. 시대의 변화에 대한 인식과 불변하는 인간의 근본적인 필요성에 대한 확고한 이해가 균형을 이루어야 하겠다. 아무리 시대가 달라져도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이며,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다는 확신이 없이는 개혁교회의 설교자가 되기 어렵다.

2. 개혁교회의 신앙전통에 견고히 서야 하겠다.

뿐만 아니라 21세기의 개혁교회 설교자는 개혁교회의 신앙전통에 견고히 서야 하겠다. 개혁교회라는 이름은 하루 아침에 얻어진 것이 아니다. 종교개혁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면면히 이어 온 어떤 흐름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 면에 있어서 정체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개혁교회라는 이름을 가질 수가 없다. 성경본문의 문맥

144) 장두만, 같은 책, 182면. 그는 1) 이 방식은 아웃라인을 가지고 설교하기 때문에 설교자가 하고자 하는 말을 거의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으며, 2) 이 방식은 전달이 아주 자연스러우며, 3) 이 방식은 그 내용에 다소 융통성이 있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을 살피고, 계시의 역사성에 대한 이해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일 역시 어떠한 신학적 입장에서 하느냐가 중요하다. 성경 해석에 있어서 신학적 입장의 중요성에 대하여서는 실바 교수가 상당히 강조하고 있다. 실바 교수는 “칼빈주의적 해석방법”이란 그의 글에서 “성경 해석과 조직신학 사이의 밀접한 연관성”¹⁴⁵⁾을 강조하였는데, 칼빈에 있어서 그의 신학 사상과 석의와의 관계를 “칼빈의 신학적 사상은 그의 석의의 인도자 역할을 했으며, 그의 석의는 또한 그의 신학에 계속적으로 공헌했다.”¹⁴⁶⁾고 주장하였다. 실바 교수에 의하면 “신학과 성경 해석을 분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다.”¹⁴⁷⁾ “칼빈의 성경 해석과 그의 신학 모두가 매우 훌륭한 이유는, 바로 그것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¹⁴⁸⁾이라고 주장한다.¹⁴⁹⁾ 실바 교수는 심지어 “신학적 구조 내에서 의식적으로 성경 해석을 한다면, 그와 같은 성경 해석은 손해가 되기 보다는 이익을 준다고 제안하고 싶다”¹⁵⁰⁾고 하며, “적절한 석의에는 신학적 반영이 있어야 한다”¹⁵¹⁾고 주장하였다. 트림프 교수 역시 “설교자는 설교 작성 중에 성경의 교훈이 형성된 교회의 교리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¹⁵²⁾ 그러나 그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본문을 교리의 증명장 (loca probantia)으로 사용하도록” 의도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그것은 쉽게 객관주의로 이끌어가고 본문의 메시지를 죽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¹⁵³⁾ 그럼에도 “설교는 성경의 교리에 의존해야 하고 ... 교회의 교리를 통하여 내적으로 확증되어야 한다.”¹⁵⁴⁾고 하였다. “모든 설교 작성에는 신앙고백과 하나의 내적인 관계가 있으며, 그래서 설교는 교의학의 채(sieve)로 걸려져야 한다.”¹⁵⁵⁾고 하였다. 그리고 이 교의학은 “편파적이고 설익은 결과를 잘라내고, 이단적 요소를 발

145) 월터 카이저.모세 실바(공저), 같은 책, 391면.

146) 같은 책, 391-392면.

147) 같은 책, 403면.

148) 같은 책, 403-404면.

149) 칼빈 자신도 신학과 해석학이 상호간에 보완적이라고 생각한 듯이 보인다. 기독교 강요의 서문에서 칼빈은 자신의 글을 통해 “경건한 신학도들”이 “그 모든 부분을 지닌 종교의 총체”를 파악하도록 도움을 받고 그들의 성경연구에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였다. 그와같은 자세는 칼빈이 주석을 쓸 때, 긴 교리적인 논쟁을 피할 수 있도록 했을 것이다.

150) 월터 카이저.모세 실바(공저), 같은 책, 404면.

151) 같은 책, 405면.

152) 트림프, 같은 책, 28면.

153) 같은 책, 같은 면.

154) 같은 책, 29면.

155) 같은 책, 같은 면.

견하도록 한다.”¹⁵⁶⁾고 하였다. 우리의 현실은 개혁교회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그 내용이 상실된 모습이다. 개혁교회라는 그 이름에 걸맞도록 내용을 갖추기 위하여 우리의 신앙전통에 관한 연구와 전수가 반드시 있어야 하겠다. 도르트 회의와 웨스트민스터 회의가 자리하는 17세기에 대한 연구도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¹⁵⁷⁾ 이 시대의 주요 문서들이 거의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다 더 큰 이유는 이 시대를 가리켜 스콜라적 정통주의로 규명하는 교회사가들의 일방적인 매도 때문이다.

3. 개혁교회의 설교자로서 성경본문을 개혁교회적으로 해석하고 전달도 개혁교회적으로 하여야 하겠다.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설교와 관련된 전반적인 것들이다. 개혁교회 설교는 먼저 성경본문이 개혁교회답게 해석되어야 한다. 알레고리보다는 문자에 치중하며, 문자에 치중하되 문맥을 중시하며, 성경문서 자체의 역사성을 고려하며, 성경문서가 제시하는 내용인 계시사건의 역사성을 중시하는 가운데 그 본문이 해석되어야 한다. 설교본문은 어차피 제한된 부분인데, 부분에 대한 해석이라 할지라도 개혁교회의 전체적인 신앙들에 어긋남이 없어야 할 것이다. 본문해석과 관계하여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본문을 말씀하신 그 분의 마음이다. 그 분의 마음에 대한 헤아림이 없이 문자만 해석하고 있어서는 안되겠다. 또한 개혁교회 설교는 전달 역시 개혁교회다와야 한다. 지나치게 청중들의 감정에 호소하는 방식은 개혁교회답지 못하다. 본문의 말씀을 침착하게,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조리있게 말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몇몇 앞서가는 교회들에서 첨단기기들을 활용하여 예배 중 설교시에 그에 상응하는 영상들을 전면의 대형 스크린에 띄어주거나, 설교 전 후에 설교의 주제를 중심으로 연극이나 영상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청중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방식이라고는 하지만 과연 이러한 방법들이 성경적인지는 신중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156) 같은 책, 같은 면.

157)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국내 신학교들 중에서 17세기 신학에 대하여 강좌를 개설하고 있는 학교는 거의 전무한 상태인데, 최근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이 강좌를 개설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고무적이다.

4. 청중도 개혁교회적이어야 하겠다.

끝으로 생각할 것은 설교가 개혁교회 설교다우려면 그 설교를 듣는 청중도 개혁교회 교인다와야 한다는 사실이다. 설교자가 청중들의 요구를 외면하기 어려운데,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청중들의 요구에 맞추어 가다 보면 개혁교회의 강단조차도 그 독특성을 상실하기 십상이다. 교인들에게 교회가 무엇이며, 예배가 무엇이며, 설교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잘 가르쳐야 할 것이며, 그러한 가르침을 수용하고 순종하는 교인들을 길러내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면에 성과를 얻지 못하면 제아무리 개혁교회를 표방한다 하더라도 개혁교회일 수 없으며, 설교자가 개혁교회적으로 설교한다 하여도 그 설교가 호응을 얻기 어려울 것이다.

맺 음 말

지금껏 우리는 '21세기 개혁교회 설교의 방향'에 대하여 논하였다. '21세기'는 과연 새로운 세기이다. 아무도 살아보지 못한 세기를 우리가 살게 되었다. 21세기 특유의 현상들이 있을 것임에 틀림 없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선 인생의 내면적인 모습에는 조금도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예측되는 다양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보다 근본적인 인간의 필요에 있어서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먼저 확신하여야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21세기에도 그 택하신 백성을 말씀으로 부르시고 양육하실 것이다. 굳이 '개혁교회' 설교의 방향이라고 하였으므로 그냥 성경적이라고만 해서는 그 특성을 드러낼 수가 없다. 개혁교회라고 불리우는 그 전통에 충실해야 한다. 그 전통에 충실하기 위해서 착실한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심각한 전통의 단절을 극복해야 하겠다. 종교개혁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개혁교회의 주선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신앙계보에 대한 조직적이며 체계적인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개혁교회 설교'라 하였으므로 설교가 갖는 일반적 고찰 위에 개혁교회다운 특성을 고려하였다. 본문의 문맥을 강조하는 강해설교, 계시의 역사성을 강조하는 구속사적 설교(또는 성경신학적 설교), 변증적 특성을 강조하는 변증적 설교, 그리스도 중심성을 강조하는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 등이 따로따로 주장되지 말고 한 설교에 종합적이고 총체적으로 나타나야 하겠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석되고 작

성된 설교가 전달되는 면에 있어서도 개혁교회 설교는 개혁교회다와야 한다고 하였다.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하되 감정을 부추기거나 감정에 의존하지 말고 오직 성령에 의지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간구하면서 전해야 한다. 또한 설교에 있어서 설교자, 본문과 함께 중요한 구성요소 중의 하나인 청중에 대해서도 논하였는데, 개혁교회 설교가 앞서 말한 이러한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청중 또한 개혁교회 교인다와야 한다고 하였다. 교인 수에 집착하여 전반적으로 수준을 떨어뜨리게 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주께서 허락하신 교인들을 수준있게 양육하여야 하겠다. 이 글을 맺는 시점에서 우리가 느끼는 중요한 과제는 개혁교회라고 표방하는 그 이름에 걸맞는 개혁신앙의 내용을 제대로 전수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 신앙의 바른 전수를 위해서 보다 체계적이며 깊이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이 신앙전통에 있어서 모범적인 설교자가 있다면 그의 설교 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연구가 있어야 하겠다고 생각한다. 설교가 하늘 아버지의 말만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